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3. 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**英 총리, '극단주의 위험성' 긴급 경고**
 - 3.2 언론은 영국 「리시 수낙」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, 극단주의 범죄가 충격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극단주의 세력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공격하려는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
 - ※ 또한, 최근 보궐선거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후보가 당선된 것을 비판하며 시위 진압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등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언
- **벨기에, '온라인상 무장 공격 모의 혐의'로 10대 4명 체포**
 - 3.4 언론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심취해 '온라인상 무장 공격을 모의한 혐의'로 10대 4명을 체포하여 압수한 휴대전화·노트북을 분석 중이며, 무기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

미주

- **에콰도르,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테러리스트 12명 사살**
 - 2.27 에콰도르 정부는 1월 9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50일 동안 보안군이 작전을 수행해 테러리스트 12명을 사살했으며, 총기 3,371정, 폭발물 2만여발, 탄약 21만 5천여발 등을 압수했다고 발표
 - ※ 에콰도르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단체를 '테러조직', '공격적 반정부행위자'로 규정, 해당 범죄 단체를 경찰과 군이 개입해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
- **美 육군, 대테러부대 규모 감축 등 전력구조 개편**
 - 2.28 언론은 美 육군이 순항미사일·무인기 대응 부대 등 미래戰 부대 전력을 증원하고 대테러戰 관련 특수부대를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'육군 전력 구조 변혁' 白書を 발간했다고 보도
 - ※ 언론은 전력구조 개편의 원인으로 아프간·이라크 등과 벌여 온 테러와의 전쟁 종식과 중·러 등 강대국과 전투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부언

중 동

- 이스라엘, UN산하기구 직원 450명 테러 연루 주장
 - 3.5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(UNRWA) 소속 「알 하와자라」의 통화 감청내역을 공개하며, UNRWA 직원 450명이 하마스에 가담하는 등 테러에 연루되었다고 보도
 - ※ UNRWA는 직원들중 일부가 이스라엘軍의 고문·학대로 자백한 것이라 반발, 일각에선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이스라엘의 여론전이라는 의견도 제기

아·태평양

- FATF, 북한·이란 13년 연속 '고위험국' 유지 결정
 - 2.2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는 지난 21일부터 프랑스에서 진행된 총회 결과, 테러자금 방지 등과 관련한 등급 중 최고수준인 '고위험 국가'로 지정되어있는 북한과 이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
 - ※ 북한은 지난 '11년 '고위험 국가'로 상향 조정된 후 13년째 이를 유지 中
- 日, 도쿄 산리오 테마파크 테러예고 이메일로 인해 임시휴관
 - 2.24 언론은 도쿄의 헬로키티 테마파크로 유명한 산리오 퓨로랜드가 “테마파크에 위험물을 설치했다”는 이메일을 받았으며, 안전 확보를 위해 하루 동안 임시휴업을 결정했다고 보도
- 대만, 국회의장 겨냥 폭탄 테러 협박으로 수사 착수
 - 3.4 언론은 대만 국회의장을 겨냥한 폭탄 테러 메시지(facebook)가 게시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, 同 게시글은 해외 IP를 통해 작성됐고 계정의 소유자도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었다 보도

아프리카

- 부르키나파소, 성당 테러로 최소 15명 사망
 - 2.26 언론은 25일 부르키나파소 북부 국경 마을 성당에서 지하디스트 무장단체 소행 테러가 발생, 최소 1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보도
 - ※ 지하디스트에 의해 지금까지 2만여명이 희생되고 200만명의 실형민이 발생

보코하람, 나이지리아에서 연쇄 자살 폭탄테러

- '15.3.7 나이지리아 동북부의 최대 도시 마이두구리주 수산시장 등 5개소에서 발생한 연쇄 자살폭탄테러로 58명 사망·140여명 부상
 - ※ 목격자들에 의하면, 첫 테러는 인력거를 탔던 소년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후에는 여성들이 몸에 폭탄을 두르거나 가방에 넣은 뒤 자폭
 - 이 사건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없었으나, 나이지리아 당국은 그간 同所에서 적극 활동중인 '보코하람'을 유력 배후로 지목하고
 - 공격이 더욱 극렬해지는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지역연합軍 등과 함께 대대적인 군사작전 개시, 자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강화
- 한편, 보코하람 지도자 「아부바카르 셰카우」는 同 사건 직후 ISIS에 충성을 맹세하는 음성메시지를 트위터에 공개하며 테러를 선동
 - ※ 당시 보코하람은 ISIS에 충성맹세를 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중 가장 큰 규모(약 6천명)

< 보코하람(Boko Haram) >

- (결성) '02년 「무함마드 유수프('09.7 사망)」가 서구식 민주주의 폐지를 주장하며 나이지리아 동북부 마이두구리에서 조직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영국('13.7), 미국('13.11), 캐나다('13.12), UN('14.5)
- (의미) '서구식 교육은 죄악'이라는 뜻(보코<非이슬람교육> + 하람<罪>)
- (연계세력) ISIS, 바쿠라그룹
- (활동지역) 나이지리아(요베·카노·바우치·보르노·플래토주 등 중·북부), 카메룬 북부, 차드 서부, 니제르 남동부 일대
- (활동수법) 對정부 게릴라戰, 마을 습격 및 민간인 무차별 학살, 총기난사·납치 등
- (참고사항) '15.3 前 지도자 「아부바카르 셰카우」가 ISIS에 충성을 맹세하였으나, '16.8 ISIS가 「알 바르나위」를 신임 지도자로 임명하자 내분이 발생, 이후 「아부바카르 셰카우('21.7 사망)」의 보코하람과 「알 바르나위」의 'ISIS-西아프리카지부'로 분열